

《동시YO》의 음악적 특성 분석

— 대중음악 수용 및 창작기법을 중심으로 —

신정아*

국문초록

본고는 어린이의 취향에 맞는 동요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대중음악을 동요에 적용시키는 방안을 고찰하였다. 대중음악의 요소와 세계 각국의 음악적 특징을 수용한 《동시YO》를 중심으로 작곡 기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르페지오와 싱크레이션 기법을 통해 신나는 분위기를 표현했으며, 블루스와 R&B 음악을 수용해 기존 동요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대중적인 리듬멜로디를 적용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록(Rock)과 랩(Rap)은 물론 스윙 필과 반음계적 화성의 사용, 16분 음표 활용으로 새로운 동요 스타일을 만들어냈다.

《동시YO》는 형태적으로나 내용적인 면에서 꾸준한 발전과 확장을 거듭한 동시가 그에 적합한 곡과 어울릴 때 완전한 동요로 어린이에게 다가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작품을 기반으로 창작된 동요이기 때문에 ‘음악적인 면과 시적인 세계’(문학성과 예술성)를 동시에 추구한다. 무엇보다 대중음악의 요소를 접목시킨 파격적인 곡의 변화 등 동요의 정립을 위한 꾸준한 노력은 어린이와 동요의 간극을 좁히는 데 분명한 영향력과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 기대한다.

■ 주제어: 창작동요, 교육, 대중음악, 작곡기법, 어린이, 동시요, 문학성

* 단국대학교, 00sja14@hanmail.net

— 목차 —

1. 서론 2. 동요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1) 초등학교 음악교육과 창작동요제 2) 동요와 중등 음악교육 비교	3. <동시YO>에서 동요의 문학성과 대중음악의 수용 1) <동시YO>의 코너별 성격과 문학성 2) <동시YO>에서 음악적 기법의 확장 4. 결론
------------------------------------------------------------------------	--------------------------------------------------------------------------------------------

1. 서론

인간 문화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항상 생존과 관계가 있다.¹ 인간에게 음악적 갈망이 있다면 그것은 음악이 단순한 여흥이나 오락이 아니라 인간 생존과 관계있는 중요하고 본질적인 활동이라는 것이다. 오래 전부터 사람들은 음악이 인간을 매혹시킨다고 생각해왔다. 음악이 ‘인간 생존’에 있어 마법과 같은 힘을 갖고 있다는 믿음의 흔적은 여러 언어에서 확인된다. 라틴어로 칸타레(cantare)가 ‘노래하다’라는 뜻인데, 인칸탄테(incantante)는 ‘마법을 걸다’라는 뜻이 된다. 이탈리아어에서도 칸토(canto)는 ‘노래’인데, 인칸토(incanto)는 마법이다. 프랑스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샹테’(chanter)가 ‘노래하다’는 동사인데 앙샹테(enchanter)는 ‘마법을 걸다’ 또는 ‘황홀하다’라는 뜻이 된다.² 이렇듯 음악은 인간을 매혹시키며,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근대로 넘어오면서 유럽에서는 음악이 제의, 축제, 춤, 여흥을 위해서가 아니라 음악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다는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 에밀 뒤르켐, 『사회학적 방법의 규칙들』, 윤병철 역, 새물결, 2019, 73면.

2 민은기, 『음악, 인간의 삶』, 『근대성 49강 강의자료집』, 네이버 <열린 연단>, 2019, 10-11면.

지금까지 무엇을 하기 위한 수단이던 음악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된 것이다. 이것은 음악의 마법적 기능을 인식한 결과로, 사회적 기능에서 분리되어 감상 그 자체만이 목적이 된 순수한 음악 예술의 등장이다.³ 그러나 음악장르 중에서 동요는 음악의 마법적 기능에서 분리, 사회적 기능에 주목하는 듯하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기능은 관객에게 보여 지기 위한 것으로 감상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는다. 보여 지기 위한 음악은 ‘부르는’ 것이 필수이고, 감상적 기능으로서의 음악은 주로 ‘듣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때, 동요가 ‘부르는’ 음악에 치중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부르는’ 음악으로써의 동요는 1983년 발단된 ‘창작동요제’를 시작으로 더욱 굳혀져 갔으며, 현재까지도 “초등학교 음악교과서는 가창위주의 제재곡 익히기 학습이 대부분을 차지”⁴하고 있다.

동요가 창작되는 과정으로 크게 두 가지 방법을 들 수 있다. 하나는 처음부터 불리기 위한 노랫말(가사)에 곡을 붙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시에 곡을 붙여 동요로 불리는 것이다. 가요를 시인이 창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현대 창작 동요는 초기부터 동시작가가 작사를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960~1970년대 동시작가로 불리던 시인들은 문학성을 갖대로 예술성이 떨어지는 동요를 짓지 않았다.⁵ 본격 문학이 전개되던 1980년대가 되자 동요는 점점 더 쇠퇴기를 걷게 된다.

그러나 아동문학의 출발이 동요에서 시작되었고, 어린이들에게 동요가 떨 수 없는 장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동요의 노랫말 쓰기가 아동문학

3 위의 책, 20-21면.

4 최은경, 「초등 교과서 수록 동요참고문헌동시의 현황과 특징」, 『아동청소년문학연구』14,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4, 317-355면.

5 아동문학인들 사이에서는 동요가 문학의 하위 장르라는 인식이 굳어져갔다. 동요가 음악의 노래가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인의 의무적인 것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것을 자각한 아동문학인은 ‘동요문학 동인회’를 조직하여 한국동요문학의 부흥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어린이가 있는 곳에는 노래가 따르는 것이며, 여기에 노래를 제공하는 책임은 아동문학인이 지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동요로 돌아가자”는 「동요문학선언」(1981)⁶을 공표하였다. 이후, MBC 방송국에서 제1회 창작 동요제(1983)가 개최되면서 동요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지만 수상을 목적으로 한 동요는 사실상 ‘보여주기’식의 형태로 전락하고 만다. 반면, 동시는 동요와 분리되어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 자유동시에 곡을 붙인 동요가 꾸준히 발표되었으나, 작곡가는 상을 받기 위한 테크닉에 집중하였고 이러한 악순환은 30여 년이 넘게 지속된다.⁷ 이것은 정통적 동요의 형식을 구축하는 데 일조한 한편, 작곡에 있어서 다양한 음악적 기법을 수용하는 데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어린이가 음악적 감상보다 보여 지기 위한 노래와 율동으로 어른의 꼭두각시 노릇을 했다는 평가는 결코 과언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동시는 정서적인 측면은 물론 문학적 기법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로 확장과 발전을 거듭한 반면 동요로서의 음악적인 기법은 동요제 평가 기준에 맞춰 다소 일관된 형태를 유지해왔다. 동시의 형태나 정서적인 측면이 확장된 만큼 동시 작품에 곡을 붙일 때 그에 맞는 음악적인 기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곡에서만은 일관된 형태를 고집한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동요와 어린이의 간극을 좁히는 데 실패한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우선적으로 동요의 현실태를 다음과 같은 방법에 준하여 점검하였다.

6 신현득, 「동요문학선언」, 『동요문학의 재조명』, 서울: 동요문학동인회, 1981.3.1, 1면

7 동요제 수상곡은 자연스레 음악교과서에 실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현상이라 여겨진다.

첫째, 초등학교 음악교육과 창작동요제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요즘 학교에서 배우는 동요는 평소에 어린이가 스스로 찾아서 듣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어린이가 부르는 것을 어른이 지켜보는 형태로 전락하고 있다. 결국 어린이와 어른 모두 스스로는 향유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창작동요제를 통해 발표되는 곡은 일반 어린이가 따라 부르기 쉽지 않은 테크닉을 중시하기 때문에 동요 주체자인 어린이가 즐겨 감상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둘째, 동요에서 시의 기능을 점검한다. 기존 동요의 가사는 교육적인 가사, 노랫말을 대어주는 정도의 가사 등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린이의 감성을 자극하는 다양한 동시가 발표되고 있으므로 동시를 적극 활용한 창작동요를 발표하고 전파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동요에서 대중음악을 적극 수용하고 작곡 기법을 확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 동요의 작곡 형태는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동요는 동요다워야 한다’는 천사주의 동심에 머물러 어린이와의 간극을 좁히기가 쉽지 않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시가 확장·발전함에 따라 작곡 기법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기준을 염두에 두고 동요 창작을 시도한 잡지 《동시YO》가 있다. 그리하여 본고는 기존 동요가 가지고 있던 문학성을 담보하면서도 음악성이 뛰어난 동요를 발표한 잡지 《동시YO》를 중심으로 동요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집중 탐색할 것이다.

2. 동요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1) 초등학교 음악교육과 창작동요제

한국에서 초등음악교육은 기본적으로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다. 교과서에 실린 동요들은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학습요소를 가르쳐야 하는 제재곡이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들의 심성과 다양한 음악적 요구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특히, 어릴 적 배우고 불렀던 동요에 머물러 있는 어른들의 ‘동요관’은 현재를 살아가는 어린이들과 많은 시간적, 환경적,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어른들은 그 동요관을 지금의 어린이들에게 접근시키려고 한다. 그 인식의 변화 없이 요즘 어린이들이 대중가요만을 즐겨 부르고 동요에는 흥미를 잃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창작 동요제를 통해서 발표되는 새로운 곡들조차 대회 수상을 목적으로 동요를 전문적으로 부르는 어린이나 동요를 가르치는 동요 가창지도자들에 의해서만 불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⁸

동요는 동요이기 이전에 음악이다. 대중에게 음악은 여가생활의 일부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음악을 들으며 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고 공연을 감상하는 것까지 다양한 활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은 음악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휴식과 위안을 주는 것에 있다. 이러한 공통된 특성은 동요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학교 음악교육은 학생들의 노래 실력 향상을 의도하지만

8 윤학준, 「2000-2009 창작동요에 나타난 음악적 기법의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2010, 1면.

그것으로 인해 노래의 향유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더욱이 어린이는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지극히 수동적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른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어야만 한다.

복지국가들은 학교 음악교육에서 어린이의 행복한 삶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⁹ 특히, 미국이나 독일은 학습 요소에 따른 제재곡 선정보다는 주제별 선정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학습자의 흥미를 끌기에 보다 적합하다.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노래의 학습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그 노래의 창의적 수용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따라서 음악의 향유가 음악적 내용의 학습보다 우선하며, 음악의 향유에는 가사의 내용 및 곡의 분위기¹⁰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 때 동요는 들으면서 절로 흥얼대는 노래로써 기능하게 되므로 ‘듣는’ 음악과 ‘부르는’ 음악의 구분이 무의미해진다.

학교 음악교육의 중요성과 그 영향력을 고려하면 어린이가 좋아할 만한 동요가 초등학교 교과서를 통해서 알려져야 한다. 먼저 학생들의 호응에 따라 제재곡을 선정하고, 그것에 합당한 수업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수업의 재료가 되는 노래는 학생들에게 호감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해당 노래를 기꺼이 배우고 싶어 하는지가 중요하다.¹¹ 창작동요를 수용시키기 위해서 음악 교육의 수요자인 어린이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함은 물론이다.¹² 그리하여 본고는 U초등학교 3, 4학년 50명의 어린이를 바탕으로 그들의 음악적 성향과 관심분야에 대해

9 주대창·김금옥·진강희, 「초등학교에서의 창작동요 수용에 관한 연구」, 『낭만음악』20권 2호, 낭만음악사, 2008, 31면.

10 위의 논문, 17-18면.

11 위의 논문, 6-8면 참고.

12 유영화, 「동요와 대중음악에 대한 태도 및 인식에 관한 연구」, 춘천교육대 석사논문, 2002, 2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다음 [표 1]은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초등학생 음악적 성향과 관심분야

1. 동요와 가요 중에서 어떤 음악을 더 좋아하나요?	
① 동요	18% (9명)
② 가요	82% (41명)

2. (1-② 표시한 어린이) 가요가 더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반드시 한 가지만 고르세요.)	
① 신나는 리듬 때문에	65.85% (27명)
② 재미있는 노랫말(가사) 때문에	34.15% (14명)

설문조사 결과, 동요보다 가요를 좋아하는 어린이가 4배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요가 더 좋은 이유는 노랫말이 아닌 ‘신나는 리듬’ 때문이라는 응답이 두 배 가까이 되었다. 어린이 스스로 신이 나서 몸을 흔드는 것은 노랫말보다 작곡적인 면에 있으며, 이것은 음악이 음에서 시작해서 음으로 끝나는 음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예술 활동¹³임을 증명한다.

3. 동요와 가요 중에서 평소에 더 많이 듣는 음악은?	
① 동요	14% (7명)
② 가요	86% (43명)

4. (3-② 표시한 어린이) 동요를 듣거나 부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18.60% (8명)
② 가요를 듣거나 부르는 것이 더 즐거워서	81.40% (35명)

13 위의 논문, 14면.

동요와 가요 중에서 평소에 더 많이 듣는 음악은 가요인데, 이것은 환경에 의한 결과이기도 하다. 가요는 어린이가 스스로 찾아서 듣기도 하지만, 텔레비전만 켜면 접할 수 있는 음악이 가요다. 실제 ‘동요를 듣거나 부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가요를 듣거나 부르는 것이 더 즐거워서’ 라는 대답이 약 4.5배 정도 많았다. 이것은 동요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결과라 하겠다.

5. 좋은 동요와 그렇지 않은 동요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① 건전한 노랫말(가사)과 리듬	46% (23명)
② 즐거운 노랫말(가사)과 리듬	54% (27명)
6. 대중음악과 대중가요는 같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다르다고 생각하나요?	
① 같다.	80% (40명)
② 다르다.	20% (10명)
7. 동요가 대중음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① 네	30% (15명)
② 아니오	70% (35명)
8. 학교 음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가요?	
① 재미있다.	24% (12명)
② 재미없다.	30% (15명)
③ 그냥 그렇다.	46% (23명)

좋은 동요와 그렇지 않은 동요에 대해서는 ‘즐거움’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어린이가 더 많았다. 어린이 대부분은 대중가요와 대중음악을 구분하지 않으며, 동요가 대중음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린이는 30%에 불과했다. 건전한 노랫말을 특성으로 하는 동요는 대중음악과 거리감

이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9. 대중음악이 학교음악교과서에 실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① 좋다	72% (36명)
② 싫다	10% (5명)
③ 잘 모르겠다	18% (9명)

학교음악에 대한 만족도는 ‘그냥 그렇다’가 46%로 가장 많았다. 음악 교과는 예체능 수업인 만큼 공부 위주의 교과목에 비해 부담이 적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가 재미있어하는 수업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교 교과 과정에 있기 때문에 배우는 과목 이상, 이하도 아님을 의미하며, 어린이가 기다리는 음악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을 제언한다.

또한, 대중음악이 학교 음악 교과서에 실리는 것에 대한 생각은 70% 이상의 학생이 좋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물론 학생들이 대중음악을 대중 가요와 일치되는 개념으로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대중가요와 같이 신나는 음악(동요)에 목말라 있음을 알 수 있다.

10. 노래방이나 소풍 장소에서 즐겨 부르는 음악은?	
① 동요	24% (12명)
② 가요	76% (38명)

노래방이나 소풍 장소에서 어린이가 동요 대신 가요를 부르는 것은 학교 음악교육이 생활에 전혀 적용되지 않음을 뜻한다. 이것은 음악교육의 수요자인 어린이의 음악적 성향을 파악하지 못한 채, 학교음악과 생

활음악이 철저히 분리된 결과라 하겠다.

창작동요는 어른이 어린이를 위해 지은 노래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에 대한 주도면밀한 관찰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는 주제나 소재 면에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제한을 받게 되면 창작자 자신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내용에 의존하여 창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창작된 동요는 현재의 어린이들의 삶과 생각보다는 그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어린이들의 삶과 생각에만 머물러 버리거나 관찰자적 입장에서 어린이들의 생활을 서술적·객관적으로 묘사하는 데만 그치고 만다.¹⁴

동요 창작 및 활성화를 위한 대회에서도 어린이는 여전히 객체였고 대중의 취향에 편승하여 화려한 포장으로 어린이의 꿈과 재능을 강요하였다.¹⁵ 동요제에서 상을 받기 위한 창법과 보여 지기 위한 율동으로 어린이는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으며, 동요를 부르는 어린이의 창법도 점차 획일화되어가고 있다. 성인가요의 각종 경연대회가 음악적 감동보다는 고음이나 기술적 난해함을 득점 포인트로 삼는 등 일종의 서커스화 되어가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렇듯 어른들의 유희정신에 빠져 어린이를 대상화하므로 요즘 동요가 어린이를 확대하는 도구로 전략해 있음은 과언이 아니다.

2) 동요와 중등 음악교육 비교

동요란 사전적 의미로는 “어린이의 생활감정이나 심리 상태 등을 아

14 최혜숙, 「창작동요의 문학·음악적 경향 고찰」,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1999, 107면.

15 염경아, 「창작동요의 경향 분석을 통한 작곡기법 연구: 2010-2016년 창작동요제 입상곡을 중심으로」, 경성대 석사논문, 2017, 15면.

동문학용어로 표현한 정형적인 시요(詩謠) 또는 그 시요에 곡을 붙인 노래”이다.¹⁶ 요즘 동요는 유치원생 내지는 초등학교 1학년까지가 그 대상인 듯하다. 초등학교는 담임이 주로 교실에서 어린이와 함께 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동요를 들려주기가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고학년은 물론 저학년에서조차 동요를 부르는 어린이를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십 대의 초등학생은 이미 대중가요에 흡수되어서 아이돌의 노래를 듣거나 따라 부르는 것이 현실이다. TV, 라디오 등 시청각 매체를 통해 전파되는 대중가요는 어린이를 현혹시키기에 충분하다. 어린이가 유행 가사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다.

대중가요는 가사에 있어서 어린이가 따라 부르기에 자극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는 그들의 심성이 드러난 맑고 순수한 동요를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져오고 있다. 그러나 대중가요를 찾는 어린이만 탓할 것이 아니라 대중가요에서 어떠한 요소가 어린이 마음을 사로잡았고, 대중음악적인 요소를 동요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틀을 유지하려는 보수적인 가치관으로는 어린이와 동요의 관계를 좁힐 수 없다. 동요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린이가 동요를 향유하는 데 있어서 대중음악의 요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음악교육의 문제점은 비단 초등학교에서만의 상황은 아니다. 수많은 힙합, 아이돌그룹, 걸 그룹들이 현란한 동작의 댄스 음악으로 국내 대중음악무대를 달구기 시작하던 시기에 고교생들이 학교 음악시간에 배운 악곡들은 그들의 음악수요 현실과는 너무 동 떨어진 구세대 음악들이었다. 이것은 음악교재를 편찬한 전문가들이 이 교재를 배울 중

16 이강숙·김춘미·민경찬, 『우리 양악 100년』, 서울:현암사, 2002, 118면.

고교생들의 부모세대였다는 것,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러한 음악들이 청소년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 힘들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알았어도 무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7차 교육과정 음악 교재 편찬자들은 우리 대중음악 5~6곡을 교과서에 수록하면서 1990년대 젊은 세대의 우상이었던 서태지의 <발해를 꿈꾸며>를 포함시켰다. 이것은 아이돌과 걸 그룹에 열광하는 2000년대 젊은 세대의 ‘음악 수용적 욕구와 정서’에 눈높이를 맞추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¹⁷에서 의의가 있다. 다음은 <발해를 꿈꾸며>에서 가사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진정 나에겐 단 한 가지 내가 소망하는 게 있어
갈려진 땅의 친구들은 언제쯤 볼 수가 있을까
망설일 시간에 우리를 잃어요

한 민족인 형제인 우리가 서로를 겨누고 있고
우리가 만든 큰 욕심에 내가 먼저 죽는 걸
진정 너는 알고는 있나 전 인류가 살고 죽고
처절한 그날을 잊었던 건 아니었겠지

우리 몸을 반을 가른 채 현실 없이 살아갈 건가
치유할 수 없는 아픔에 절규하는 우릴 지켜줘

시원스레 맘의 문을 열고 우리와 나갈 길을 찾아요

17 정교철,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의 대중음악 수용사례에 대한 연구」, 『음악과 민족』46, 민족음악학회, 2013, 223-266면 참고.

더 행복할 미래가 있어 우리에게

언젠가 나의 작은 땅에 경계선이 사라지는 날
많은 사람이 마음속에 희망들을 가득 담겠지
난 지금 평화와 사랑을 바래요

- <발해를 꿈꾸며> 일부

<발해를 꿈꾸며>의 주제는 ‘통일 염원’이다. 1994년도에 ‘록(Rock)’이라는 장르로 통일을 염원한 것은 독보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록(Rock)’ 음악을 교과서에 실을 수 있었던 것은 주제에 담겨 있는 교육적인 가치 때문일 것이다. 물론 학생들이 곡의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 노래를 듣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가사에 통일염원이라는 교육적 함의가 결부되어 있는 것은 교과서에 실리는데 큰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또한, <발해를 꿈꾸며>는 대중가요인 만큼 음률이나 리듬이 강렬한 메탈사운드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로 하여금 절로 흥얼거리게 한다. 곡의 진지하고도 묵직한 주제의식을 인위적으로 주입시키는 것이 아닌, 스스로 부르면서 몸과 마음에 흡입되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매력적인 음악교육을 초등학교 음악 교육과정에서는 못 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물론 초등학교 음악과 고등학교 음악을 비교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있다. 우선적으로 동요 대신 대중가요를 초등 음악교과서에 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해를 꿈꾸며>처럼 교육적인 효과를 얻으면서 초등학생들이 즐겨 따라 부를 수 있는 동요창작기법을 얼마든지 고민해볼 수 있다.

특히, 2010년대 이후 중등음악 교육과정의 대중음악 수용 현상은 급격

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젊은 세대에게 음악수용의 정서면에서 최대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은 진보적인 교재'로 학생의 흥미와 음악교과서의 간극을 좁히려는 적절한 시도라 평가할 만하다

한편, 어린이가 가요를 부르는 것을 문제라고 지적하는 이유는 폭력적이거나 충동적인 가사 때문이다. 예를 들면, <발해를 꿈꾸며>의 가사 중 '서로를 겨누고 있고', '내가 먼저 죽는 걸', '전 인류가 살고 죽고' 등은 다소 자극적이다. 동요의 노랫말을 가요의 가사 분위기로 바꾸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초등학교 음악교육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그러나 동요에는 동시를 노랫말로 한 작품이 적지 않다.¹⁸ 좋은 동시의 특성은 문학성과 예술성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적절한 동시를 선별하여 초등학생이 공감하고 흥얼거릴 수 있는 곡을 붙인다면 어린이가 즐겨 부르는 동요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다. 노랫말을 대어주는 정도의 가사가 아닌 공감, 감동, 설득의 기능을 갖는 동시(문학작품)가 음악과 어우러질 때 이중의 효과를 노릴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전형적인 동요 형태를 따라가기보다 현 동시의 흐름에 맞게 지속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두고 창간된 계간지 《동시YO》¹⁹는 동시 작품을 중심으로 꾸준히 동요를 발표해왔다. 동요와 어린이의 거리 좁히기를 시도한 《동시YO》는 음악적이면서도 시적인 미의 세계를 추구하여 동요의식과 시적 형상화의 조화 여부를 기능할 수 있는 증거들이다. 동요에서 문학적인 요소의 확장에 비해 음악적인 요소는 기존의 형태에 머물러 있으므로 동요의 문학성과 음악성에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기도

18 한국동요작사작곡가협회, 한국동요음악협회 등에서 작사가(동시인)와 작곡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

19 2018년 3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현재 제6호까지 발행되었다.

하다. 다음 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3. 《동시YO》에서 동요의 문학과 대중음악의 수용

1) 《동시YO》의 코너별 성격과 문학성

학습 내용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개인은 바로 학습의 주체가 되는 학습자라고 할 수 있다.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내용이 학습자의 흥미, 능력, 발달 특성에 적합해야 한다.²⁰ 특히, 다른 학문 분야와는 달리 음악, 미술, 체육 등의 교과목은 정신적 혹은 육체적인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용희는 “창작동요는 어린이의 감성에 영향을 주므로 정서함양에 저해되지 않고, 순수한 의미를 내포해야 한다. 동요의 노랫말 역시도 어른스러운 감각과 탈선을 유발하는 오락적이고 상업적인 노랫말은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²¹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 동요를 통해 어린이가 맑고 순수하게 자라나기를 바라는 것도 어른이 원하는 동심에 기초를 둔 동요관이라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전의 동요는 <새 나라의 어린이>와 <어린이 행진곡>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교육적인 기능이 많이 강조되어 그 시대가 원하는 어린이상에 대한 바람과 희망을 반영하였다면 최근 동요들은 부르는 주체인 아이들의 요구와 어른들에 대

20 김희숙, 「초등학교 음악과 국악 내용의 적합성 분석 준거 개발」, 경북대 박사논문, 2009.

21 한용희, 『한국의 동요』, 서울:세광음악출판사, 1994, 216면.

한 불만이 드러나 있다.²²

특히 2000년대 이후 동요 가사의 분위기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동요에서의 아이들은 더 이상 이상적인 밝고 착한 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부모 몰래 게임도 할 수 있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김성윤 작사/ 제갈 현 작곡) 등 진정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기 시작했다.”²³ 톡톡 튀는 재미있는 가사로 어린이의 생활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아동문학 장르는 특성상 어떠한 방식으로든 교육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동요의 교육성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계간지 《동시YO》는 어린이가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스타일과 잘 어울려진 노래의 가능성이 요즘 동시 속에 있다는 전제 하에 동시에 곡을 붙여 발표하고 있다. 그만큼 《동시YO》에 수록된 시적동요는 문학성을 확보하는 한편, 음악성을 도모한다. 시어로서 살아있는 리듬이 감흥을 주며, 어린이가 스스로 발견하기 힘든 세계를 제시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

앞서 미국이나 독일은 음악교과서 구성에서 곡의 주제별 선정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가사의 내용 및 곡의 분위기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동시YO》 또한 주제별로 나눠 동요를 소개하는 것을 기본구성으로 한다. 이것은 어린이의 마음을 투영시키되 시적 경지에 이르러 예술면에서도 진한 감동을 선사함으로써 삶의 바탕에 깔려있는 모든 감동적 요소를 이해하는 지평을 열어준다. 다음 [표 2]는 《동시YO》의 주요 코너와 그에 따른 주제를 정리한 것이다.

22 정아름, 「한국 동요 발달과 특징에 관한 연구 : 창작동요제 출현 이후 동요를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논문, 2013, 40면.

23 임수연, 「현대 동요의 창작 경향에 관한 연구」, 명지대 석사논문, 2007, 50면.

[표 2] 《동시YO》 주요 코너와 주제

	꼭지 제목	코너 주제(내용)
1	네 개의 바람	계절과 관련된 동시와 노래를 담고 있다. 꼭지 제목 ‘네 개의 바람’은 네 개의 계절(봄, 여름, 가을, 겨울)을 뜻한다.
2	꼬까신 하나	유아들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동시와 노래를 담고 있다.
3	동시밥상	먹을거리와 관련된 동시와 노래를 담고 있다.
4	학교종이 땡땡	학교생활을 소재로 재미있는 동시와 노래들이 담겨 있다.
5	같이 살자	동물들과 관련된 동시와 노래를 담고 있다.
6	고뽕	말하는 이에게는 나름 진지한 것이지만 바라보는 이에게는 웃음을 자아내게 만드는 이야기가 있다.
7	서서 자는 나무	나무나 꽃들에 관한 동시와 노래가 담겨 있다.
8	얼굴 마주 보며 생긋	아이들이 두근거리며 누군가를 바라보는 마음의 동시와 노래가 담겨 있다.
9	엄마를 위한 자장가	엄마가 되어 자신의 엄마를 기억하게 되었을 때의 느낌을 노래 속에 담고 있다.
10	담장을 허물다	형식적인 장르의 벽을 허물고,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읽고 공감할 수 있는 모든 시를 담아보려 한 코너이다.
11	고슴도치 방식	동시에 관한 묵은 편견을 깨는 새로운 시각들을 소개하고자 하는 코너이다.
12	거울 속 아이에게	동시가 되는 여러 만남을 거울 속에 비친 어린 자신의 모습과 만나고 있는 시인의 뒷모습으로 담아보려 한 코너이다.
13	벼꽃 이야기	잘 보이지 않아도 벼꽃처럼 이미 활짝 피어있는 어린이가 쓴 시를 담은 코너이다.
14	귀 기울이면	발달장애인처럼 세상을 조금은 다른 감각으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려 한 코너이다.
15	어린 달과 어울리러	동시조와 동시조로 엮은 노래를 담고 있다.
16	어떤 말들이 노래가 되나	노래 가사로 쓰인 것이 아닌 시로서의 동시가 어떤 만남을 통해 노래가 되는지에 대해 음악을 만드는 이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보려 한 코너이다.

위와 같이 《동시YO》는 자연, 가족, 학교, 친구, 음식, 동시조, 유아동시, 소외계층 등 16개의 주제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강기원, 곽해룡, 김금래, 김미혜, 김성민, 김응, 이도환, 이장근, 이재복, 장세정, 조계향, 차영미 등 전문 동시인이 주제의 특성에 맞는 동시를 선별하기 때문에 문학적인 수준 또한 높ی 평가할 만하다.

동요는 마음의 고향이며 인간이 문학에 눈뜨는 시발점이 된다. 동요는 가장 인간에 밀접한 문학이며 시와 노래의 근원이 되어주고 있다.²⁴ 동요는 리듬이 생명이지만, 그 기본적인 요건 위에 “과연 얼마만한 시적 또는 문학성의 깊이, 감동 또는 사유의 영원성—즉 입과 귀에서 국한되는 전통을 떠나 그것에서 머리로 전달되는 순후한 문학성의 질감을 얼마나 적절히, 또는 얼마만한 차원으로 담아낼 수 있을 것인지, 그것도 동요의 운명론적 생태로서 큰 문제임은 물론이다.²⁵ 동요가 시정신의 근원적 자각 없이 단순한 정서표현의 가락과 아름다운 노래로 일관되어 나타난다면, 이것은 진정한 생명의 실체를 잃은 유사한 창조행위의 복제일 뿐이다. 어린이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문학적 양식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그들이 흡수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문학으로서의 동요는 어린이에게 더 깊은 깨달음과 감동을 줄 수 있으며, 정서적 몰입을 가능케 한다. 동요의 노랫말이 어디까지나 시 문학인만큼 문학적인 조화가 어느 정도인가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창작에 있어서 동요 창작은 가요 창작보다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가요 창작을 전문 작곡가 내지는 작사가가 담당하는 반면 동요는 그렇지 않은 것에서도 확인된다. 1980년대 창작동요제가

24 신현득, 「동요문학선언」, 『동요문학의 재조명』, 서울: 동요문학동인회, 1981.3.1, 1면.

25 이상현, 『한국아동문학론』, 서울: 동화출판공사, 1976.

처음 시행될 무렵에는 많은 동요가 초등학교 교사에 의해서 창작되었다. 특히, 현직 교사들로 참가 자격을 제한했을 때는 교육용으로 사용 가능한 동요가 창작되어 일관된 스타일의 동요 창작이라는 부작용도 있었다.²⁶ 그러나 창작동요는 어린이들 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가까이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음악의 한 장르가 되어야 한다.²⁷ 동요는 전문적인 지식과 연주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음악의 성격을 지닌다. 이것은 독일의 힌데미트가 주장한 실용음악과 비슷하며 사회학적으로 따지면 대중음악의 한 갈래이다. 동요가 어린이를 위한 음악이라 할지라도 음악적인 면에서 대중성과 예술성이 겸비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동요가 많은 어린이들이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음악이라야 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현대 창작동요는 재즈적이고 보다 화성적인 흐름으로 대중음악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음악적 기법을 일부 수용하고 있으나”²⁸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린이들의 음악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동요창작 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2) 《동시YO》에서 음악적 기법의 확장

《동시YO》 기획자 김재욱(필명 꿈훤)은 김문규, 김정옥, 박우진, 서창원, 영호, 정윤경, 황란주 작곡가와 함께 동시에 곡을 붙이면서 어린이는 물론 대중에게 사랑받는 동요를 발표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가장 바람직한 동요는 어린이에게 읊어지고 감동을 주는 작품이다. 보다 많은 사람들

26 정아름, 위의 논문, 43면.

27 염경아, 위의 논문, 70면.

28 임수연, 위의 논문, 55면.

이 동요를 찾을 수 있도록 《동시YO》에서 추구하는 작곡기법은 랩(Rap), 내레이션(narration), 록(Rock) 등 대중음악에서 주로 활용되는 테크닉이다. 《동시YO》 작품에 적용된 대중음악 기법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아르페지오 기법의 활용

<구름 위 걷기 연습>(강지인 시, 꿈휴 곡)은 아르페지오 기법을 활용한 작품이다. 화음의 구성음이 한 음씩(때로는 2음씩) 마디의 박자 수에 따라 배치되거나, 연속적으로 위 또는 밑에서부터 빠르게 연주하여 화음 전체를 결합시키면서 더 흥겹고 신나는 분위기를 표현한 곡이다. 전자악기가 아닌 우리에게 정겨운 기타와 타악기의 연주만으로도 아름다운 동요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① 아르페지오	② 싱크페이션
<p style="text-align: center;">구름 위 걷기 연습</p> <p style="text-align: right;">강지인 시 꿈휴 곡</p>  <p style="text-align: center;">B-1710</p>	<p style="text-align: center;">자전거 타는 아이</p> <p style="text-align: right;">권병도 시 꿈휴 곡</p> 

(2) 싱코페이션 기법의 활용

싱코페이션이란 강박자 상에 있는 멜로디를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늦추는 방법을 통하여 악박자에 위치하도록 하는 작곡 기법이다. 악박자의 자리에 액센트가 생기면서 강약의 위치가 바뀌는데, 이로써 선율은 느낌이 더욱 강력하며 신나는 리듬을 갖게 된다. 싱코페이션 기법을 사용한 <자전거 타는 아이>(전병호 시, 꿈휴 곡)는 삼바²⁹에 모던재즈 감각이 가미되어 느긋한 코드의 변화와 은근한 리듬, 여기에 자연스럽게 울려 퍼지는 멜로디가 감미로운 곡이다. 뿐만 아니라, 기타나 피아노만으로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린이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

또한, 음악에 있어서 조성은 크게 장조와 단조 두 가지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장조의 곡들이 더 많이 작곡되고 불려온 것이 사실이다. 장조를 메이저라고 부르는 것도 그 이유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질곡의 삶을 살아온 민족의 역사 때문인지 단조의 곡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더욱 사랑을 받아온 경향이 있으며, 동요에서도 마찬가지다. 한편, <구름 위 걷기 연습>은 라장조, <자전거 타는 아이>는 바장조로 두 곡 모두 기존 동요와 비교했을 때 조성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3) 블루스 음악의 수용

<단풍놀이>(임수현 시, 박우진 곡)에 활용된 블루스는 모든 대중음악의 뿌리가 되는 작곡기법이다. 블루음계³⁰ 스케일의 코드 진행과 12마디 형

29 4분의 2박자 리듬을 기본으로 하는 음악으로 매우 빠르고 정렬적인 특징이 있다.

30 블루 음계란 미국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African American)들에 의해 발전된 음악 양식이다. 아프리카적인 선율과 리듬을 바탕으로 유럽의 화성과 악기들이 결합된 것으로 유럽의 음악양식과는 구별되는 많은 특징들이 있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블루 음계의 사용으로 창조적인 화성 위에 동주음 단조적인 멜로디를 사용하게 되는데 유럽 화성 이론상으로는 성립하기 어려운 결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블루스 음악은 미국 대중음악의 근간이 되었으며, 재즈, 리듬 앤 블루스, 락 음악 등 많은 대중음악 장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식, 부르고 응답하기(Call and Response)가 음악적 핵심인 <단풍놀이>는 장조와 단조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 애가(哀歌)로, 아주 ‘느린’ 네 박자의 애절한 악곡이다.

또한, <단풍놀이>는 매우 짧은 시다. “요번 가을에도// 사과나무는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서/ 단풍놀이 또 못 가겠다.”라는 한 문장이 노랫말의 전부다. 이처럼 《동시YO》는 여백이 많은 짧은 동시³¹도 음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③ 블루스	④ R&B
<p>114 동시YO는 나요</p> <p>단풍놀이</p> <p>원곡: 김민서 / 작곡: 김민서</p> <p>장조, 4/4박자</p> <p>114 동시YO는 나요</p> <p>동시YO는 나요 / 가을이 왔네 / 단풍이 노랗게 / 가을이 왔네 / 단풍이 노랗게 / 가을이 왔네 / 단풍이 노랗게 / 가을이 왔네 / 단풍이 노랗게</p>	<p>학교에서는</p> <p>원곡: 박우진</p> <p>♩ = 128</p> <p>학교에서는</p> <p>학교에서는 / 선생님이 / 가르쳐 주신 / 모든 것들 / 학교에서는 / 선생님이 / 가르쳐 주신 / 모든 것들 / 학교에서는 / 선생님이 / 가르쳐 주신 / 모든 것들</p>

31 “엄만/ 내가 왜 좋아// 그냥……//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 (문삼석의 「그냥」 전문)/ “외판집 할머니가 혼자 산다// 할머니 심심할까봐/ 그림자가 졸졸 따라다닌다.”(이화주의 「달밤」 전문) 한편, 창작동요제에서는 가사는 물론 작곡 측면에서 짧은 노래를 수용하지 않는다. 노래가 짧을수록 어떤 테크닉을 기준으로 높은 평가를 받기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4) R&B 음악의 수용

R&B는 리듬(rhythm) 앤 블루스(blues)의 약칭이다. <학교에서는>(최종득 시, 박우진 곡)은 블루스를 바탕으로 한 화성과 전기기타 등을 활용한 경쾌한 리듬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R&B는 블루스보다 댄스비트가 강하고 리듬멜로디도 대중적이기 때문에 기존 동요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음악적 기법을 활용하면서 분위기의 전환을 이룬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대중음악은 리듬을 가장 중요시 하며,³² 다양한 리듬적 받침 위에 멜로디와 화성이 만들어 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대중음악의 특성이 <학교에서는>에서도 확인된다. 이때, 드럼셋과 수많은 타악기들이 작품을 편곡하고 연주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밖에 어린이 시 <별레 먹은 배추>(정진영 시, 서창원 곡)는 미국의 전통적인 컨트리 음악과는 조금 다른 블루그래스 기법이 적용된 동요이다. 기타와 밴조로 연주하며,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낸다.

(5) 록(rock)의 활용

<이 가족이 사는 법>(한상순 시, 박우진 곡)은 전기음과 강렬한 비트의 성격을 갖는 록(Rock) 기법을 활용하였다. 노랫말에서 “뱀새 알을 둥지 밖으로 밀어내고 둥지를 독차지한 아기 빠꾸기는 염치없이 뱀새에게 먹이를 받아먹는다.”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와 반항이 비유적으로 표현된 가사(노랫말)에 다소 직설적이고 거친 표현의 록(Rock) 음악이 어우러져 신선한 느낌을 준다. 베이스, 드럼 등 밴드 음악을 기조로 한 위의 동요는 동시(작사)에 적절한 곡을 삽입함으로써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32 대중음악의 또 다른 특징은 리듬의 강조에 있다. 음악의 3요소가 화성, 선율, 리듬이지만 기존 유럽의 클래식 음악(우리의 가곡, 동요 포함)은 선율과 멜로디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달걀 프라이」(김유진 시, 황란주 곡)와 「천관산 역사」(이대흠 시, 꿈휴 곡)는 16분 음표를 기본 단위로 하여 작곡된 음악으로 8분 음표를 주로 사용하여 만든 음악보다 더욱 다이내믹하고 다양한 변화를 주고 있다. 현대의 어린이들에게 이와 같은 16분 음표로 세분화된 음악(16비트)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것은 “최근 어린이의 음역 발달이 이전보다 빨라지고 있다는 연구보고와도 일맥상통”한다.³³ 8분 음표 혹은 4분 음표 등을 위주로 하여 만든 음악은 자칫 지루하고 단순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동요에 16분 음표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8) 반음계적 화성의 사용

7화음 또는 9화음 이외에서 다양한 고급 화성을 사용하는 것도 현대 대중음악의 추세이다. 특히 재즈 등 수준 높은 음악에 대해 깊이 공부한 사람들이 대중음악계에 많이 몸담고 있어서 대중음악의 수준이 계속 향상되고 있다.

「저녁 별」(송찬호 시, 꿈휴 곡)의 경우 멜로디는 주로 기본적인 음을 활용했으나 부분적으로 반음계를 사용했으며, 화음면에서는 반음 진행이 많이 활용되어 재즈음악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가곡과 동요의 화성적 구조는 화성학의 기초적인 수준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동요에서 반음계적인 화성의 사용을 찾아보긴 매우 어렵다. 아직도 온음계적인 화성 내에서, 그것도 주요 3화음 위주로 창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때, 「저녁 별」의 작곡 기법은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33 정선영·김영연, 「유아교육기관에서 활용하는 창작동요제 입상곡 악곡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3권 6호, 2005, 195-218면 참고.

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는 한국에서도 브라질리안 풍의 음악을 만들거나 아랍 풍의 음악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또한 반대로 먼 나라에 있는 친구가 우리의 국악적인 요소가 담긴 음악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다양한 작곡 기법을 동요에 적용하지 않는 현실이다.³⁴ 동요 장르에서도 얼마든지 재즈(Jazz)와 록(Rock)음악이 결합할 수 있으며 클래식과 힙합이 만날 수도 있다. 우리의 국악과 아프리카의 음악이 만날 수도 있다. 즉, 현대의 동요 작곡가는 장르를 초월하여 세상의 모든 문화와 예술을 받아들이고 이를 결합시켜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동시YO》에 소개된 동요 중 약 10여 편의 작품을 중심으로 대중음악을 활용한 작곡법의 양상을 살펴본 바, 음악적 표현에 의한 주제의 형상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동요의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었다. 음악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기 마련이며, 동요를 작곡하는 작곡가들은 동시대적인 음악적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중음악 관계자들은 더 이상 대중음악을 외면하는 것은 우리 청소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중음악 교육론을 외치고 있다.³⁵ ‘맑고 순수한’ 노래여야 한다는 동요의 정통성이 어린이와 동요의 관계를 악화시켰음을 부정할 수 없다. 아무리 맑고 고운 동요라도 수요자가 없다면 소용없는 일이다. 대중문화를 하층문화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닌 음악 교육의 한 요소로 수렴하는 풍토 조성과 교육 정책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동시YO》는 동요에 적합한 대중음악의 요소 내지는 세계

34 퓨전 음악의 시대에 도래하였으며, 동요에서도 음악의 여러 장르들을 혼합하여 새로운 음악 스타일을 만들어 내고, 얼마든지 많은 결합이 이루어 질 수가 있다.

35 유영화, 위의 논문, 16-17면.(실제로 중,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 건전 가요 등의 이름으로 몇 곡의 대중가요가 실리기도 했다.)

각국의 음악적 기법을 동요 장르에 꾸준히 접목시켜 어린이의 흥미와 동요의 간극을 좁히려는 동요대중화에 적절한 시도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겠다.

4. 결론

창작동요는 어린이들에게 놀이과정 중의 하나로 인식되어 저항감 없이 어린이들과 자연스럽게 융화되어 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악교육의 관점에서 동요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³⁶ 동요의 창작은 어린이를 위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일이다. 환언하면, 동요가 어린이를 찾기보다 어린이가 찾는 동요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동요는 동요 음반 제작, 인터넷 및 MP3 사용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와 거리 좁히기가 쉽지 않다. 그것은 대중매체의 발달로 동요보다 가요를 즐겨 듣는 어린이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가요는 어린이에게 휴식과 놀이인 반면 동요는 학습적인 도구로써만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동요를 어린이의 장르로만 인식하는 것도 문제이다. 이것은 동요의 수준을 높여 많은 대중에게 다가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어린이가 듣고 부르는 노래라고 해서 기존의 획일화된 동요창작기법에만 의존한다면 동요의 미래는 밝을 수 없다. 적어도 어른이 들었을 때도 자꾸만 흥얼거리게 되는 노래를 어린이가 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³⁷

36 장성자, 『어린이 국악 교육』, 서울:창지사, 1988, 16면.

37 그림책이나 동시를 읽고 어린이 충분히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동요도 마찬가지이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어린이의 취향에 맞는 동요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중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 실린 대중가요를 예시로 어린이 동요 창작에 적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대중가요를 초등학교 음악교과서에 실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대중가요 작곡 기법을 동요에 적용시키는 방안을 마련해볼 수 있다. 그리하여 대중음악의 요소와 세계 각국의 음악적 특징을 수용한 《동시YO》를 중심으로 작곡 기법을 분석해보았다.

살펴본 바, 《동시YO》에 수록된 작품은 아르페지오와 싱코페이션 기법을 통해 신나는 분위기를 표현했으며, 블루스와 R&B 음악을 수용해 기존 동요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대중적인 리듬멜로디를 적용시켰다. 록(rock)과 랩(rap)은 물론 스윙 필과 반음계적 화성의 사용, 16분 음표 활용으로 새로운 동요 스타일을 만들어냈다.

《동시YO》는 ‘음악적인 면과 시적인 세계(문학성과 예술성)’의 조화를 추구한다. 동시작품을 기반으로 창작된 동요이기 때문에 가사 측면에 있어서도 언어적 표현에 의한 시적 형상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시의 아름다움을 맛보는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양한 덕목이 내재된 동요는 성장하는 어린이의 인격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동시YO》는 형태적으로나 내용적인 면에서 꾸준한 발전과 확장을 거듭한 동시가 그에 적합한 곡과 어우러질 때 완전한 동요로 어린이에게 다가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대중음악의 요소를 접목시킨 작곡 기법 등 동요의 정립을 위한 꾸준한 노력은 어린이와 동요의 간극을 좁히는데 분명한 영향력과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김재욱, 《동시YO》 봄호, 출판사, 2018.
_____, 《동시YO》 여름호, 출판사, 2018.
_____, 《동시YO》 가을호, 출판사, 2018.
_____, 《동시YO》 겨울호, 출판사, 2018.

2. 논문 및 평론

- 김희숙, 「초등학교 음악과 국악 내용의 적합성 분석 준거 개발」, 경북대 박사논문, 2009.
염경아, 「창작동요의 경향 분석을 통한 작곡기법 연구: 2010-2016년 창작동요제 입상곡을 중심으로」, 경성대 석사논문, 2017.
유영화, 「동요와 대중음악에 대한 태도 및 인식에 관한 연구」, 춘천교육대 석사논문, 2002.
윤학준, 「2000-2009 창작동요에 나타난 음악적 기법의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2010.
임수연, 「현대 동요의 창작 경향에 관한 연구」, 명지대 석사논문, 2007.
정교철,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의 대중음악 수용사례에 대한 연구」, 『음악과 민족』46, 민족음악학회, 2013, 223-266면.
정선영·김영연, 「유아교육기관에서 활용하는 창작동요제 입상곡 악곡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13권 6호, 2005, 195-218면.
정아름, 「한국 동요 발달과 특징에 관한 연구 : 창작동요제 출현 이후 동요를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논문, 2013.
주대창·김금옥·진강희, 「초등학교에서의 창작동요 수용에 관한 연구」, 『낭만음악』20권 2호, 낭만음악사, 2008, 5-35면.
최은경, 「초등 교과서 수록 동요참고문헌동시의 현황과 특징」, 『아동청소년문학연구』14권,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4, 317-355면.
최혜숙, 「창작동요의 문학. 음악적 경향 고찰」,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1999.

3. 단행본

- 민은기, 「음악, 인간의 삶」, 『근대성 49강 강의자료집』, 네이버 <열린 연단>, 2019.
신현득, 「동요문학선언」, 『동요문학의 재조명』, 서울: 동요문학동인회, 1981.
이강숙·김춘미·민경찬, 『우리 양악 100년』, 서울: 현암사, 2002.

이상현, 『한국아동문학론』, 서울: 동화출판공사, 1976.

장성자, 『어린이 국악 교육』, 서울:창지사, 1988.

한용희, 『한국의 동요』,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4.

에밀 뒤르켐, 『사회학적 방법의 규칙들』, 윤병철 역, 서울: 새물결, 2019.

Abstract

Analysis of <<Dongshi(Children's Poem)YO>>'s Musical Quality

- Focusing on Technique of Creation & Accept to Public Music -

Shin, Jung-a

This article analyzed children's songs fit to their interests and trends, and suggested possibilities to apply popular songs appeared in music textbooks from middle and high schools as examples to create children's songs. It is difficult to contain popular songs in elementary school music textbooks, and yet it is available to apply composing methods for popular songs to children's songs. And so focusing on <Dongshi(Children's Poem)YO> accepting elements from popular songs and musical characteristics from the world, composing methods are reviewed.

As a result, through arpeggio and syncopation methods, fun atmosphere was expressed, and popular rhythms and melodies not available for thinking in the existing children's songs were applied by applying blues and R&B Music. In addition, using rock, rap as well as swing feel and chromatic scale harmony, and utilization of sixteenth notes, new style of children's song genre was made.

<Dongshi(Children's Poem)YO> was created based on children's poems, and its lyrics are easily accepted for both children and adults, and it pursuits to

'musical perspective and poetic world. Therefore, experiencing directly poetic figuration through linguistic expressions, it is available to have educational effect for enjoying beauty of poetry, and children's songs containing various virtues could affect considerably formation of children's characters. First of all, continuous efforts to build children's songs including dramatic change by trying to apply popular songs' elements will have clear influences on and development for narrowing gap between children and children's songs.

- Keywords: creative nursery rhyme, education, popular music, composing method, child, Dongshi(children's poem)YO, literary value
- 논문접수일: 2019. 5. 15. / 심사기간: 2019. 6. 2. ~ 2019. 6. 7. / 게재 확정일: 2019. 6. 12.

